

예수 · 마리아 · 요셉의
성가정 축일

기도서 P. 233 A해

제1독서(시락 3, 3-7, 14-17)
제2독서(골로 3, 12-21)
복 음(마태 2, 13-15, 19-23)

숨 정이

| | |
|-----|-------|
| 발행인 | 김 환 철 |
| 인쇄인 | 김 불 희 |
| 주간 | 조 성 호 |
| 편집 | 한 상 갑 |

편집실 : 전주 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 辛酉



謹 賀 新 年

副主教 金 스테파노

1980년은 악몽을 꾸면서도 그 꿈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쳤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날의 뼈아픈 과거사를 돌아보아 무삼하리요 만은 광주 유혈사태를 비롯하여 비상계엄령, 사복 근로자 소요, 대학휴교령, 정치활동 금지령, 권력형 축재축출령, 국가보위 발족, 대통령 하야, 대통령 선출, 개헌안 투표, 입법회의 발족, KAL기 화재, 메스클 통·폐합, 수개의 신당 발족, 칼라 TV 방영, 등등— 정말 변화 무쌍한 한 해였습니다.

사람의

잘못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요, 우리나라의 수치는 우리 모든 국민의 수치스러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잘못을 저지른 쪽은 우리편인데 이 잘못을 속죄하신 분은 무죄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해를 마무리 지면서 통절히 누워쳐야 할 사람들은 저쪽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 편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비록 광야는 아니라도 옥중에서, 요한 세자는 아니라도 의로운 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잠히 있어야만 하는지 두려워져 겁 집 숨이 차 옵니다. 한참 열이 올라 흥분상태에 있노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부리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마태오 26장 52절)

그렇다면 우리는 도살당하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의로운 자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새 싹이 돋아 100배 200배의 결실을 기다려야 하는지?— 한 해를 넘기면서 이토록 숨이 차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1981년의 새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명년을 이웃 전교의 해로 정하고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웃 전교의 해를 맞이하면서 이웃 형제들을 우리 순교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여 일찍이 성도님께 봉헌된 나라, 내 조국에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몸바쳐 사도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시다. 이것이 바로 1980년의 숙죄의 제물로 우리를 바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도 추워요”

—한 해를 보내며

「 시내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고 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 창문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달지지를 않는다. 다른 자리로 옮길까 했으나, 누군가에게 그 추운 자리가 차지되겠기에 그냥 눌러 앉았다. 겨울 바람인지라 단단히 매섭다. 뒷자리에 있던 중년부인도 추웠던지 문 좀 달아 달란다. 마스크를 코에 걸친채 “예, 저도 추워요” 하며 웃고말았다. 젊음이들 몇이 창문을 닫으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몹시 추운 퇴근길이었다.」

“정말로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며 갖가지 감회가 크다. 바보처럼 고생했던 <추운 퇴근길>을 묵상하며, 세례에는 조금은 더 잘살아 보겠다고 다짐해 본다.

왜 춥게 고생했는가? 다시 잘 생각해 보니, 그때 버스를 세우고 창문을 고쳤어야 했다. 안쪽의 손잡이가 고장이 났으니. 안과 밖에서 손을 내어 창문을 달았으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을까? 평소애 사물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하고, 제때에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 <시대의 징표>를 바로 읽어야 된다는 교회의(공의회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 탓이다.

왜 버스를 못 세웠는가? 용기가 없어서였다. 시간이 없다는 운전기사의 핀잔(?)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정해진 운행 시간에 차질이 날지도 모른다는 지극히 소심한 생각에 항상 맥을 못쓰고 절절매는 소시민이어서였을 것이다. 아무리 정해진 일정이 있다고 해도 근본적인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도 용기가 없어서 침묵했고, 그 침묵의 댓가로 버스에 탄 선의의 시민들은 추위를 감안해야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포기한 당연한 결과였다.

시대를 바로 보고, 주어진 역사의 현장에서 항상 예언자로 살자!

숨 정이 산책



81년도 교구 사목 관리지침

81년도 이웃 전교의 해를 맞아 설계한 교구 사목, 운영계획과 지침을 지면관계상 전부 게재치 못하고 우선 대강만을 발표해 드립니다. 추후 주교단 공동 사목교서와 세부지침, 월별 계획 등은 차례로 게재,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교구사무처-

A. 교육 사목 지침

1. 복음연구와 선교 사명 고취

우리의 구원과 선교 사명은 무엇보다도 성서와 그리스도를 철저히 익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다방면의 성서 연구 모임과 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작년에 이은 전신자 신앙(피정)교육을 확대(진수) 실시하므로써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확립과 이웃 선교 및 구원에의 사명감을 고취토록 노력 해야겠다.

① 성서 중심 교육지도 방안 연구, 실시 : 교육위 내에 특별위원 선정, 연구 지도 계획 수립

② 전신자 신앙(피정) 교육 확대 실시 : 80년도 교구 피정 교육을 각 본당, 단체 자체교육으로 전수

③ 전신자 선교운동(1인 1도 운동) 및 성가정 운동 전개

④ 교구 상설 예비자 교리반 설치 : 가톨릭센터 내에 가톨릭 입문 강좌 개설

⑥ 주보(금정)를 통한 교리교육 및 선교활동 전개 : 편집방안 연구, 개선

2. 조직 선교를 위한 사도 수련

현대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더욱 조직화되고 또한 각 조직(단체) 지도자들의 확고한 신앙관과 정예화를 기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금년에는 좀 더 총력을 기울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체적인 지도자 양성과 수련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① 사제생활 집중 세미나(아조르나 멘토) 개최 : 4월 27일~5월 16일 (서울에서 3주간)

② 사도회 간부 실무교육 : 1~3월중 차례로 실시

③ 공소 지도자(대표) 실무교육 : 2~3월중 계층별로 실시

④ 일반 지도자 특별교육 : 단체별, 계층별, 직업별로 연중 실시

3. 유대와 결속을 통한 교회 선양

상부상조하며 서로 협력하는데 일치가 있고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의 선양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잦은 대화(회의)와 단합을 위한 모임(행사) 및 자원봉사단의 결성 등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교회상을 이룩해야겠다.

① 평협 상임위원회 및 임원 활동 강화

② 제 단체 대표자 회의, 협력 방안 연구

③ 지구별 순교자 현양대회 및 신앙대회 개최 (9~10월)

④ 교구단위 제 단체 연합 신앙대회(함동행사) 개최 추진 (10월중)

⑤ 교구 각 전문위원회 및 후원회 조직 결성, 보강 : 자원봉사단 및 후원회 조직

B. 재정 관리 지침

1. 재단 재산 관리 철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계획이지만 금년에는 본당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단 재산 관리상 미정리된 부분을 말끔히 정리토록 한다. (특조법 시행령-81년도 2월말 한)

2. 재단 재정 관리 철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 경리 작업을 각 본당까지도 통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여 그 기반을 구축한다.

3. 행정명령 실천 강화

일반 행정관서와는 달리 강력한 규제가 없는 행정명령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교육시킨다.

4. 본당 및 공소 신실과 성전 건립을 위한 특별 사업계획 추진

이스라엘 잉어 · 토끼탕 · 산두부카레 : 전문



· 아침식사 : 해장국 (콩나물국밥)
· 교우 특별 환영

한바탕 회관

대표 최 소피아
경전라사 사거리
☎ ② 6 0 6 6

三星物産 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 · 아동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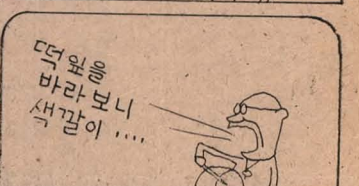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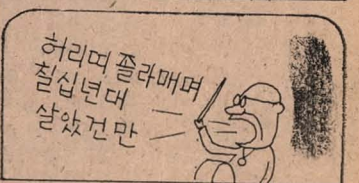
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 4 5 1 유 율리안나

교구 지도자 교육(수련) 실행계획

지도자교육(수련)

| 구분 | 내용 | 시기 | 참가대상 | 비고 | 주관 |
|--------|---|--|--|-------------------------|--------------------------|
| 성직·수도자 | 사제생활 집중세미나 | 4. 27~5. 16 | 교구사제 전원(은퇴신부 제외) | 서울상지회관 현대사목이론과 실제 가톨릭센터 | 사목국 |
| | 사회 사목 세미나 수도자 선교 세미나 | 7. 6~7 1. 2~3 | 신부 수녀 전교수녀 및 특수 선교 수녀 | | 사목국 사목국 |
| 사도회 | 사도회장단 연수 | 1. 23~24 | 사도회장단, 고문 | 각본당 2명 이상 2회로 나누어 교대로 | 사목국 및 평협 |
| | 사도회임원 1차 연수 사도회임원 2차 연수 사도회 감사 및 재산관리위원장 연수 부녀대표자 연수 | 2. 9~10 2. 13~14 1차 2. 16~17 2차 11. 5~6 3. 2~3 | 본당사도회 각분과위원장(선교, 전례, 봉사, 재정) 본당 재산관리위원장 사도회 감사 각본당 부녀대표 2명 이상 | 실무교육 여성연합회 결성 | " 관리국 사목국 및 평협 |
| 공소지도자 | 공소회장 연수 | 2. 2~3 | 공소회장 (40~60대 남자) | 공소지도실무평가 및 교리부녀활동 | 사목국 및 평협 |
| | 공소 청년지도자 연수 공소 부녀대표자 연수 | 2. 11~12 3. 5~6 | 공소남녀청년 (20~30대) 공소 부녀자 지도자 (30~50대) | | " " |
| 일반 | 여성푸르실로 (9차) | 1. 6~9 | 각본당 지도자 선발 | 가톨릭 센터 | 푸르실로 사무국 |
| | 남성푸르실로 (14차) | 1. 12~15 | " | " | " |
| 지도자 | 여성푸르실로 (10차) | 1. 19~22 | " | " | " |
| | 남성푸르실로 (15차) | 1. 26~29 | " | " | " |
| 도 | 여성푸르실로 (11차) | 3. 16~19 | " | " | " |
| | 남성푸르실로 (16차) | 3. 23~26 | " | " | " |
| 자 | 교직자(성직, 해성)연수 교직자(기타)연수 | 1. 17 1. 30~31 | 양학교 신자 교직원 교구내 신자 교직원 | " | 양학교 사목국, 평협목국 및 신협평의 사무국 |
| | 신용종합임직원연수 | 3. 13~14 | 작조합이사장, 전무, 상무 | " | " |
| 자 | 성소자교육 독신자(여)피정 | 8. 1~2 3. 7~8 | 사제지망자(학생) | " | " |

요심이 (386) 김병오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최윤경 미장원

최윤경 미용실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 윤 경(유리안나)
전화 ☎8653

개인지도식 교습-학생부, 성인부

제일 주산 경리학원

교재 무료배부, 시간은 자유로 정함

위치: 한국은행 앞 전화 ☎ 3132

원장 성 달 응(안드레아)

격조높은 분위기

아늑한

Restaurant

大 闕 대궐

예약전화
☎ 5011

전신전화국 앞 임금님다방 2층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
대립절 및 성탄절 꽃꽂이 솜대
있음

※교우여러분께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 2628

범 띠도(떡배)·이 마리아

시.군 대리점 모집

본 제품은 전여성의 절대적 필수
용품으로 수입완제품이며 세계특허
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오나 소자
본으로 대리점을 경영하실 분은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없이도 가능함)

- 자 격
1. 소자본의 소지자
 2. 지역에 덕망을 겸비한 활동성있는 분
 3. 영구적 사업으로 이끌어 가실 분

접수기간 1981. 1. 7까지 선착순

전주 연락장소는 ☎ 0498

전북총판: 전북 남원읍중앙리 62~3

(천주교회 옆)

전화 5460번

영 진 상 사

이 영 진(비리버)

□ 81년도 원아모집 □

성 체 유 치 원

입학자격: 만 5세~6세 까지

모집인원: 남·여 80명 (2학급)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80년 12월 1일~12월 20일

1980년 12월 20일 오후 4시까지

연락: 노송동 수녀원내 ☎ 840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81년 신년 교례식...81년 1월 1일(목)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강당
회비-2,000원, ※ 각 분당 사도회장님, 각 단체장님, 책임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 농민회 부녀자 초청 교육 안내...1월 16일(금) 오후 1시~18일 정오까지, 가톨릭센터
대상-농촌부녀자, 참가비-2,500원, 인원-50명(선착순)
※ 농촌 부녀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각 분당에서는 술절이 대금을 연말까지 정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보광출판사 올림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임 기 봉
사도 회장 김 성 규

5. 복자부녀회: 1월 5일 어머니미사 후
6. 축! 영세: 지난 20일 23명(유아 포함)
7. 외인을 천주교회로 인도하는 서약서
하기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74,08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함 형 수

1. 축하합니다: 영세자 38명
2. 울뜨레아 모임: 30일<화> 7시 30분
3. 중·고생 등산대회: 1월 8일<목>, 장소-모악산
조별(5명)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꾸르실로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상임위원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향당 ② 차상열, 신자들의 기도-박장준
8. 애령회 총회: 10시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67,565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중 준
사도 회장 박 춘 근

1. 80년도 송년미사: 31일 자정(12시)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위한 기도합니다
2.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위해는 끝난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3. 꾸리아 연총친목회: 1월 2일 저녁 8시
각 단원 및 예비단원들의 배제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4. 베소라 성서 강의: 매주(화) 저녁 7시30분~9시30분
5.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4시
6.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요한복서록 전체
7. 불우 이웃들에게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236,952원 성탄봉헌금: 681,256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갈 노

1. 성모회 월례회: 28일 공식미사 후
2. 교구 신년 교례식에 참여합니다
3. 사도회 월례회: 1월 4일 공식미사 후
4. 누갈다 부녀월례회: 1월 3일
5. 신축기금 내주신 분: 이강준(1만 5천원), 익명(2천원), 조순봉(1만원), 전동신임액중(5만원), 덕진 신임액중(4만원)
6. 약속하신 신축기금 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253,2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조 정 오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주일학교 방학: 오늘부터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2. 성탄절에 수고와 협조해 주신 분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3. 80년 봉헌금 미수하신 분은 4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81년도 봉헌금 신입: 가정방문 및 반상회때 하세요
5. 축! 결혼: 1월 4일 12시
신랑-김클레멘스·신부-송제클린
6. 80년 송년미사
31일 저녁 7시, 많은 참석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600,02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기
보좌 신부 김 유 석
사도 회장 유 석 중

1. 성가정 축일: 28일
2. 평일 아침미사: 12월 29일~1월 10일까지 없습니다
3. 송년미사: 31일 저녁 7시
4. 새해 신년미사: 1월 1일 오전 10시
5.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 30분
6. 젊은이 예비자 교리 방학

□ 지난주 봉헌금: 405,56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부녀회: 오늘 10시미사 후
2. 21일 주일 47명이 영세
다같이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3. 말 구유셋트를 기증하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4. 이번 영세하신 분들이 성당 화분 영세기념으로 증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성모기사회 월례회: 1월 3일 오후 1시
6. 성탄준비를 위해서 청년회, 교리교사회, 학생회, 각 프레스비디언, 어머니성가대 많이 애쓰셨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1,520원 어린이헌금: 1,910원
교무금: 835,60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입원·고분·감사) 반회장, 친선단체 임원들
2. 81년도 봉헌금 다음 주일부터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80년도 미수액 완납 바랍니다
3. 연총친목회: 레지오 마리에 단원; 협조단원
4. 첫 철례 7: 1월 3일 저녁 7시 30분